

## 현대복장 기능의 다양화 현상에 관한 연구

· 건국대학교 생활과학과  
강사

이 난 희 \*

### 목 차

- I . 서 론
- II . 사회구조와 복장기능의 변천
- III . 현대복장과 기능의 다양화의 배경
- IV . 실증적인 예의 제시
- V . 결 론
- 참고문헌
- 영문초록

### I . 서 론

복장이 갖는 본질이란 변화하는 일이다. 어떤 때는 빠르게 어떤 때는 천천히, 항상 변화해 간다. 변화라는 요소는 결코 고의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며, 한사람 또는 수많은 디자이너가 이것을 변화시키는 것도 아니다.

변화의 근원은 그 시대의 사람들의 가치에 의한 필요성과 욕구의 반영이고, 그리고 디자이너와 어패럴 산업 측이 제공하는 스타일의 수용방법에 영향을 주는 사회 환경의 변화에 의한 것이다.

사회 환경의 변화의 근원은 인간이 그 환경 속에서 내포하고 있는 가치지향에 의해 변하는 것이고, 복장 그 자체도 인간의 가치지향의 변화에 의해 유동화 되는 것이다. 인간은 의복을 착용함으로써, 자연환경에의 적응과정을 통해서, 생명유지와 신체보호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의복으로써 자기개성을 표현하고 또는 복장에 의해 타인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유지, 발전시키는 것으로부터 사회생활을 원활히 하는 수단으로써 사용한다.

후자에 있어서 복장의 기능은 인간이 사회적, 문화적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으로부터 생성된 기능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현대사회에 있어서 복장의 기능이 급격한 변화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의복을 착용함으로써 자아를 관여시키는 정도가 강하게 되었다는 것이 지적된다. 즉, 어떤 옷을 선택해서 입을까라는 착장행동

이 어떠한 자신이고 또한 자신의 개성을 타인에게 어떻게 표현하는가의 방법의 강조이다.

荻村昭典은 신체보호와 생명유지의 기능을 의복의 자연적 측면으로 한다면, 자기개성의 표현, 욕구충족의 기능은 사회적 측면<sup>1)</sup>이라고 주장했다.

1) 荻村昭典, 「服装學への道  
しるべ」, 文化出版局(1991),  
p.33.

이것에 바탕을 두면 오늘날의 복장의 변화를 의복의 사회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서 검토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대복장의 기능이 자연적 측면보다 사회적 측면이 강조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현대사회의 복장의 기능이 하나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사회구조의 변화와 관련시켜 검토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II. 사회구조와 복장기능의 변천

의복을 입는다는 행위는 신체를 둘러싼다는 행위뿐만 아니라 자연적인 것을 포함해, 문화적 세계에서 정형화되어진 유의미한 소산과 그 정형화를 제어하는 매카니즘의 과정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복장의 변화 양상을 생각할 때는 인간과 사회, 문화를 연결하는 총체적인 시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사회와 같이 복잡하고, 다양한 구조분화를 보이고 있는 사회에서는 인간의 가치도 다원화해지고, 다원화 되어진 가치에 대응하기 위해 복장의 기능도 변화하고 있다. 복장의 개념을 복장의 기능으로부터 생각해 보면, 항상, 마케팅 컨셉트(Marketing Concept)의 변천영역에서 변화해왔다. 즉, 판매 지향, 소비자 지향, 사회 지향이라는 이념을 반영한 것이다<sup>2)</sup>. 그 복장개념이 사회구조의 변화에 의해 유용성 → 차이성 → 통일성·이탈성 합리성 → 다양성 → 개성화 → 사회화로 변화해 왔다<sup>3)</sup>. 이와 같은 복장의 유동화에 따라 복장의 기능이 다양한 개념으로 변천한 요인에 관해서 荻村昭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sup>4)</sup>. 사회의 분화와 제도화와 함께, 복장은 지위와 신분을 상징하는 것으로 사회제도에 밀착함과 동시에 제약을 받아 왔다. 그러나, 신분제도가 붕괴되고 계급의식이 희박한 대중사회라고 불리는 현대에 와서는, 사람들의 자기과시와 개성, 존재 그 자체를 강하게 주장하는 것으로 변했고, 복장도 신분과 지위를 상징하는 수단으로써의 기능이 아닌 또 다른 기능을 갖고 다양화 되었다.

2) 大塚尙人, 「近代 패션론」,  
同文館(1977), p.261.

3) 상계서, P.261.

4) 荻村昭典, 전계서, p.33.

이것은 또, 현대사회의 복장의 기능이 하나의 개념으로써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개념이 혼재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복장의 개념은 시대와 함께 변화해왔다. 여기서 사회구조의 변화를 4단계로 구분하면 미분화사회, 신분사회, 근세(시민)사회, 현대사회이다. 따라서, 논자는 이 시대구분을 밑바탕으로 하여 사회구조와 복장 기능의 변천과정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 1) 미분화 사회와 복장

미분화 사회라는 것은 사회가 아직 단순한 생활 때문에 집단으로써 존재하고 집단내의 지배기구, 인간의 제도적 관계도 분화되지 않는 사회를 말한다. 이 단계의 복장은 생명유지와 신체보호의 기능, 즉 유용성에 중점을 두어, 자기 과시의 기능은 수행하지 못하는 단계이다.

5) 상계서, pp.33-34.

다시 말해서, 이 시대는 복장을 통해서 자기를 과시할 정도로 사회와 문화는 분화되지 않은 사회였다. 이것은 사회의 진보의 정도에 따라서 장신의 목적은 변화하고, 복장이 개별적인 자유를 증가시키는 일, 즉, 이것에 의해 사회적 규범의 작용이 더해지고, 인간의 복장이 현재에 도달했다<sup>5)</sup>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사회, 문화가 발달해서 자신의 생활이 충족되면 미적 추구의 심리가 강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시대의 상황은 생존을 위해서 전력을 다했기 때문에 미적인데 관심을 쏟는다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았던 사회라고 생각되어진다.

## 2) 신분사회와 복장

이 시기는 봉건적 체제의 사회이고, 문화와 사회도 체제적 분화가 제도화된 사회이긴 했지만, 복장에 관해서는 개인의 욕구, 선택의 자유는 없었다. 복장은 사회, 제도를 표현하는 것으로서 다양하지 못했고, 게다가 개인의 복장은 사회제도에 의해 제한되어 있었다. 이 단계의 복장은 소수의 귀족과 부유 계급의 관심사였고, 일반 서민의 관심사는 아니었다. 즉, 특정 계급에 한정되었다<sup>6)</sup>.

6) 大塚尙人, 전계서, p.262.

그 이유로써는, 일반서민의 경제력에도 기인하기도 하지만, 의복착용에 대한 제한령도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로마에서는 피복지와 색상이 신분의 차이성을 표시했고, 법률에 의해 농민은 1색, 상인은 2색, 귀족은 3색으로 해서, 의복의 색으로 계급을 구별했다.

이 시기의 복장은, 하층계급의 사람들이 상층계급의 복장을 모방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또, 하층계급의 사람들은 당시의 시대상황, 즉, 대외전쟁으로 정신적,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못했다.

이상과 같이 복장이 특권계급의 관심사이기도 하고, 의복의 착용이 자유스럽지 못한 신분사회에서의 복장은 신분과 지위, 계급과 집단, 아울러 종족과 민족 특유의 문화를 표현하는 것으로서 기능을 수행했다. 다시 말해서, 복장의 본질은 계급관의 차이성(Distinction)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시기는 각 개인이 복장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은 없었다고 생각되어진다.

## 3) 시민사회와 복장

근세(시민)사회의 초기 자본주의가 생성되고, 그것과 함께 18세기 후반은 산업혁명, 시민혁명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이 혁명들은 전체 사회의 여러 영역에 영향을 미쳤는데, 프랑스 혁명이 끝나고 산업혁명이 성숙되어가는 과정에서 신흥 부르주아가 출현했다.

산업혁명의 영향에 의해 의복은 대량 생산되었고, 가격도 저렴해져서 일반 대중도 의복을 싸게 살 수 있게 되었다. 일반 노동자가 증가했지만, 반면에 부유 계층도 더욱 더 경제력이 증가하고, 계급간의 경제적인 차이가 명확해졌다.

프랑스 혁명에 의해 일반시민은 평등과 주권을 행사하게 되고, 복장에 있어서도 긴 시간, 관습화되어있던 복장 제한령이 없어졌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복장을 비교적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경제력의 비표준화, 빈부격차의 증대는 근대화본주의 사회의 발전과 함께 심화되었고, 복장이 대중의 것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장을 유행시키는 리더는 상층계급의 사람들이었다.

7) T. Veblen, The Theory of the Leisure Class, Modern Library, New York(1931), p.167.

T. Veblen<sup>7)</sup>이 말한 것과 같이 그 당시의 복장은 금전적 문화의 표현으로서 기능을 다했다. 즉, 상층계급의 경제력을 과시하는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하층계급의 사람들은 상층계급의 복장을 모방하는 것으로서 통일성을 추구하고 반면, 상층계급의 사람들은 하층계급이 상층계급의 사람들의 복장을 모방하는 것으로부터 이탈을 추구하고 동시에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는 상징으로써 복장을 이용했다. 즉, 복장은 통일성(Conformity)의 수단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반면, 한편으로는 이탈성(Deviation)의 기능을 수행한 것이다.

이것은 시민사회가 빈부의 격차가 있는 사회였음을 의미하는 것과 함께, 시민사회의 복장이 신분에 의한 제도적 구속으로부터 해방되어진 사회이긴 했지만, 의복이 고가의 사치품이었기 때문에 획득하기에는 경제적 제약 때문에 자유롭지 못해 복장이 개인의 자기 자기표현의 수단으로써는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생각되어진다.

#### 4) 현대사회와 복장

위에서 상술한 시민사회는 제1차 세계대전 후, 여성해방운동이 가속화되고, 남녀평등, 자유연애 등이 사회에 번져나갔다. 여성들의 사회생활에의 진출은 경제력의 상승과 더불어, 복장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 시기의 여성들은 자신의 취미생활과 일을 활발히 했고, 그 때문에 긴 스커트의 의복이 비합리적인 것이라고 깨달았다. 이 때문에 1920년경은 스커트의 길이가 짧아지고 복장이 합리성을 추구하게 되었고, 여기서부터 현대복장으로의 전기를 마련했다.

이러한 현대사회의 복장이 다양화되기 시작한 것은 C. Dior가 New Look(1947)을 발표한 것을 계기로 현대복장이 발달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었고 여기서부터 복장이 변화를 거듭하게 된 것이다.

현대복장이 개성화되어진 것은 1960년대 중반부터이다. 그 시기는 선진국에서는 경제성장에 의한 윤택한 사회가 출현했고, baby boom에 의해 탄생한 젊은이들이 여러 영역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이 시기의 젊은이들은 자기 자신이 물건을 선택하고, 자신의 개성을 살리는 일, 권력에 대한 반항, 기성체제로부터 탈출 등의 사고<sup>8)</sup>를 갖고 있었다.

8) 萩村昭典, 전계서, p.36.

복장은 전통적인 스타일로부터 이탈하고, 여러 가지의 형태의 조합으로 자기 자신만

의 스타일을 표현하는 것을 추구했다. 이러한 자유로움을 만끽한 젊은이들의 복장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았고, 전통적인 복장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서, 복장에 의해 자신의 생활을 즐기게 되었다.

또, 경제성장에 의한 대량생산 - 대량판매 - 대량소비 체제가 구축되어, 복장도 다양화, 개성화되었고, 경제력의 상승에 의해 복장도 질적으로 향상되었다. 그것은 복장에 대한 지향이 양적인 것보다 질적으로 자기만족을 추구하려는 가치관의 변화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1970년대부터 에콜로지 사상이 대두했다. 이 사상은 20세기부터 21세기에 걸쳐 우리에게 직면해있는 과제이기도 하다. 거기서 복장도 인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역할과 함께 인간을 둘러싼 환경, 즉, 생태학적인 공간도 보호하는 기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21세기의 복장은 매크로적 시야에서 생각할 필요성을 제언하는 것이다. 그것은 자원문제, 소비자지향, 에콜로지, 인간지향을 중시하는 일을 목표로 해서 복장이 기능을 해야 한다는 것의 강조이다. 그 경우 복장의 기능을 사회화<sup>9)</sup>로 생각할 수 있다.

9) 大塚尙人, 전제서, p.261.

이상과 같이 사회구조와 복장기능의 변천을 살펴보았는데, 사회상황에 따라 복장의 기능도 변화해 오늘날에 이르렀는데, 현대사회와 같이 사람들의 욕구가 세분화, 다원화 되어있는 상황 속에서는 복장의 기능도 사람들의 욕구에 대응해 다양화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다음은 현대복장의 기능이 왜 다양화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려 한다.

사회구조	복장의 기능	
미분화사회	유용성	도구적 기능
신분사회	차이성	
시민사회	통일성, 이탈성	
현대사회	합리성	표출적 기능
	다양화	
	개성화	
	사회화	

〈표 1. 사회구조와 복장기능의 변천〉

### Ⅲ. 현대복장과 기능의 다양화의 배경

현대사회의 급격한 변화는 사회구조를 분화시켜, 질적으로 향상시켰다. 이러한 사회의 진보에 의해 사람들의 가치관도 다원화되고, 이것과 함께 현대복장도 사람들의 다양한 가치관에 대응하기 위해 상술한 것과 같이합리성으로부터 시작된 현대복장 다양화, 개성화, 사회화의 기능을 갖고 있다.

문화와 복장의 관계는 궁극적으로는 사회에 있어서의 가치를 복장이 어떻게 표시하고, 또는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가에 귀결된다. 그것을 고찰하기 위해 현대복장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복장에 대한 지위의 상징성의 약체화

중세 봉건시대에 있어서 귀족과 농민의 복장의 차이는 다 같은 인간으로써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계급의 차이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이고, 현대사회의 복장이 지위, 부의 상징이 아니라 자신의 개성, 생활양식, 행위의 표현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복장을 통해서 미적인 감각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었다는 것은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사회구조, 생활구조의 변화와 함께, 사람들의 가치관의 변화에 의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현대인의 가치관의 다원화를 가져온 배경으로는 ①민주주의를 기본구성원리로 하는 정치적인 근대화에 의한 개인의 정치에 대한 평등과 공민권의 확대를 들 수 있다. 이것은 관료제화를 진전시켰고 또한 현대인의 계급의식을 희박화시켰다. ②테크놀로지의 발달과 관료제화의 진전에 의해 경제적으로는 고도 산업화가 대두되었다. 이것들의 영향으로 신 중간층이 출현했고, 현대인의 심리 속에서는 중류의식이 확대되었다. ③고도 산업화에 의해 도시화가 촉진되고, 도시적인 생활양식이 확대됨에 따라 사람들의 소비패턴과 생활양식이 변했다. 이것은 개인주의, 실용주의를 만연하게 했다. ④과학기술의 발달은 정보화를 가져왔고, 무엇보다도 현대사회의 대중문화에 큰 영향을 끼치므로 인해 지금도 대중문화가 변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변화는 현대인의 가치관을 다원화시켰고, 생활양식의 다양화에 의해 다양한 의복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 이것이 복장에 대한 지향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현대의 복장은 지위의 상징 이상으로, 사회적 지위라든지, 부의 과시와는 그다지 관계가 없어졌다고 생각되어진다. 단지 복장은 특정 행동양식, 특정의 취미, 기호, 가치관과 자기의 표현, 또는 행위와 생활양식의 상징이 되었다고 생각되어진다<sup>10)</sup>.

예를 들어, 유명 브랜드의 의복 착용은 소비력의 과시이상으로써 미적인 감각의 표현이고, 상류계층의 표시보다는 특정 복장집단에 있어서의 공통적인 미적 감각의 표시이거나 행동양식의 상징이다. 아울러, 스포츠웨어, 진, 폴로셔츠 등의 복장은 육체노동자들의 복장이 아니라, 자신의 TPO에 맞춰 선택한 의복이다.

이와 같이 현대사회의 복장의 유동화와 다양화의 원인의 하나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복장은 더 이상 제도와 신분을 나타내는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진다.

### 2) 복장에 대한 가치의 다원화

복장에 있어서 개성화, 즉 개성적인 복장이라는 것은 기성의 복장규범에 맹종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고의적으로 반항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기성의 복장규범으로부터 독립한 곳에 위치되어진다<sup>11)</sup>.

10) 神山 進, 「衣服と裝身の心理學」, 關西衣生活研究會 (1995), p. 77-78.

11) 神山 進, 상계서, pp. 77-78.

즉, 이것은 한 사회의 복장규범으로부터 독립해서 자신의 취향에 맞는 의복을 입어보면서, 그 착장의 의미가 일관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또, 자신이 자유롭게 복장을 통해 자기만의 감각을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것이 통일성을 갖고 독자성의 발로로 인식되어지는 일이 개성적인 복장의 성립조건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오늘날에는 복장뿐만 아니라 여러 생활 영역에 있어서 개성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것은 현대인의 욕구의 세분화에 의한 것이고, 인간의 욕구는 문화수준이 뒤떨어진 단계에서는 비교적 단순하지만, 문화수준이 상승하는데 따라, 세분화, 복잡화 되는 경향이 있다<sup>12)</sup>.

12) 荻村昭典, 전제서, p.31.

이러한 배경에는 현대사회의 경제성장에 의한 생활수준의 향상, 과학기술의 발달에 의한 생활양식의 변화, 이와 더불어 정보화의 진전과 함께, 대중문화의 고도화, 다양화 등의 사회상황의 변화에 사람들은 적응하지 않으면 안 되고, 적응력을 상승시키기 위해 인간의 욕구는 비대화되었다. 이런 인간의 욕구의 비대화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회구조는 질적으로 변동되어지고 사회구조의 질적인 변동은 사회구조의 분화를 가져왔다. 이와 같이 구조가 분화되어서 더욱 복잡해진 사회제도에 적응하기 위해 인간의 욕구도 다양화, 세분화 되어가는 것이다.

현대사회와 같이 규모가 거대화되면, 자기의 존재를 과시하려는 욕구가 강하게 되고, 거기에서 외관적인 매체가 되는 것은 복장이다. 따라서, 현대사회의 복장은 자유롭고, 개성적인 자기표현의 욕구 충족을 추구하기 위한 현대인의 다양한 가치에 대응하기 위해 그 기능이 다양해졌다고 할 수 있다.

### 3) 복장의 표출적 기능의 강조

기술적, 경제적 조건의 혁신은 새로운 기능과 새로운 아름다움을 개발시켜, 복장을 변화시킨다. 고도 산업화는 현대인을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만들었고, 생활수준의 향상에 의해 이전보다 고급스러운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고, 생활의 다양화에 의해 여러 가지의 복장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또, 경제성장은 대량생산, 대량판매 체제를 구축했고, 매스커뮤니케이션을 발달시켜 의복의 소비를 촉진시키고 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면, 우선, 대량소비의 면은 고도산업화에 의해 노동의 내용도 그 형태를 변화시켜, 전통적인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수는 감소했고, 사무, 관리,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화이트칼라층의 인구는 비약적으로 증대했다<sup>13)</sup>.

13) 安藤喜久雄外 編, 「現代社會の變動論」, 新評論社 (1984), p.177.

이 화이트칼라층을 중심으로 신 중간층이 출현했다. 신 중간층은 경제적으로는 중류이지만, 이전에는 일부 계층의 소유물이든 문화와 여가를 즐기는 계층이다. 중간층의 출현에 의해 개인의 자립성이 자주성으로 진전되고 가치의 다원화가 심화되었다. 이것은 개인의 생활양식을 다양화시켜, 의복을 시작으로 소비구조를 변화시켰다.

다음은 대량생산의 면으로부터 생각해보면, 생산기술의 발달은 새로운 피복 재료를 개발시키고, 의복을 생활필수품적인 재산으로써 가치보다는 자기표현의 수단으로써 소비하게 했다. 그리고, 대량으로 생산된 의복은 중간층의 출현에 의해 대량 판매되고, 이익금은 제품 단위 하나, 하나의 원가를 낮추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이와 같은 대량생산에 의해 이익금은 더욱 더 증가하게 되고 한편으로는 소비자 한 사람, 한사람의 요구, 즉 개성화에 응할 수 있는 일을 목표로 해서 의복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형태의 의복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게다가 소비자의 경제력 상승에 의해 개성적인 의복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14) 文化服裝學院, 「Fashion Business」, 文化出版局(1993), p. 60.

또 다른 이유는 사회의 상황이 공업화 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이행함에 따라, 어패럴 산업의 역할도 증가하게 되었다. 어패럴 산업은 소비자의 요구에 민감하고, 지성, 감성, 정보력을 발휘한 상품, 서비스의 부가가치가 증가하게 했다<sup>14)</sup>.

이 경우, 새로운 소재, 색채, 디자인 등을 새로운 패션 컨셉트, 가치관에 바탕을 두어 만들어진 의복은 단지 물건이 아니라 정보이다. 이것은 옷을 만드는 기업, 또는 디자이너의 목표이념이 기술과 소재를 매체로 해서 투영, 외면화된 것이다. 그 과정은 정보화의 진전에 의해, 매스 미디어를 매체로 하는 대중문화도 고도화되어지고, 영상 기술은 고도한 연출로써 장식적 효과를 높이고, 새로운 의복이 창출되어지면 크리에이터로부터 상품을 통해 발신되어 소비자에게 수신되는 시대가 되었다.

15) 神山 進, 전계서, p. 24.

이상과 같은 상황 속에서 현대인은 복장에 대한 가치를 물건으로써의 가치이상으로 즉, 복장이 전달하는 정보의 가치를 중시하게 되었다<sup>15)</sup>.

그것을 복장의 기능으로부터 말하면, 복장에 대한 가치를 도구적 기능으로써 보다는 표출적 기능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이것은 복장을 통해서 자기 개성의 표현과 욕구충족의 수단으로서 활용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대사회의 복장의 기능과 유행의 다양화 현상은 이와 같은 현대인의 복장에 대한 지향의 변화에 의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그것은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가치를 복장이 반영하고, 적절히 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 IV. 실증적인 예의 제시

이 장은 위와 같은 특징을 보인 현대복장이 전체사회의 경제, 정치, 과학기술의 발달, 문화, 예술과 어떤 상관관계를 갖고 그 기능이 변화해 왔는지를 고찰하기 위해 실증적인 예로서, 1920년-1996년까지의 서양복식의 변천과정을 사회, 문화적 환경과 비교, 검토해 본 결과다. 개괄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1920년-1946년

이 시기는 Paul Poiret가 여성을 코르셋으로부터 해방시킨 것을 계기로, 1914년에 발발한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동안의 기간은 중산계급의 대두, 대량생산의 본격화라는 거대한 사회변동이 새로운 문화를 낳고, 여성복장이 실생활 속에서 크게 변화했다.

영국에서 여성들의 참정권이 인정되자 다른 국가에서도 참정권이 확대되고 여성들의 사회진출은 두드러지게 늘어났다. 교육을 받고, 직업을 갖게 되고, 자유로운 연애



를 하는 전후의 여성들은 보수적인 것에서 개방적인 쪽으로 가치관이 변했다. 그것으로부터, 현대복식으로 변하게 되었으며, 활동적인 생활양식에 어울리는 “합리성”을 추구하는 복장이 나타나게 되었다.

당시 가치관의 변화에 영향을 준 요소는 스포츠, 자동차의 보급, 소설, 만화 등이고 이런 가치관의 변화에 의해 복장도 변화한 것이다.

이와 같이 출현한 현대복장은 1939년 독일의 폴란드 침공을 계기로 해서 발발한 제2차 세계대전에 의해 더욱 발달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것은 제2차 세계대전에 의해 파리는 독일에 의해 점령되었고, 파리의 Haute-couture에서는 휴업과 해외로 이전하는 샵이 속출했다.

파리 Haute-couture가 불황의 상태에 있었던 이 시기에 세계의 패션계는 큰 변화가 보였다. 파리와는 단절 속에 뉴욕 패션계의 독립성은 두드러졌고, 무엇보다도 미국의 Convention 기업의 비약적인 발전, 아울러 대중 모드시대의 도래, 이와 같은 변화는 제2차 세계대전 후의 패션의 양상과 그 상황에서 파리 Haute-couture가 차지하는 지위에 새로운 혁신과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켰다.

## 2) 1947년-1963년

이 시기의 복장의 변화 과정은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복장이 발달하는 전환기와 관련시킬 수 있다. 1947년 구주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후의 곤란과 혼돈 속에서 불안정한 사회였다.

세계는 동서간의 냉전기에 돌입했고, 그 해 3월에는 세계를 자유주의와 공산주의의 양진영으로 분할되는 트루만 독트린(Truman Doctrine)이 선언되었고, 이것은 냉전의 시작이었다.

계속해서 6월 구주가 빈사의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경제재건을 위해 미국의 원조계획인 마셜플랜(Marshall Plan)이 발표되었지만, 동유럽측은 이 플랜을 거부했기 때문에 미국은 서유럽의 경제개선에 힘썼다.

이와 같이 1947년 C. Dior가 New Look을 발표했을 당시에는 서구사회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사회였다. 그러나, New Look의 발표에 의해 다양한 실루엣이 선보였고, 압도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New Look의 성공은 세계 패션이 나아갈 길을 제시했고, 국내적, 국제적으로 거대한 전후패션의 부흥을 가져왔다.

그리고, 기성복 산업에 대해서도 모드라인의 계절적인 창조와 변화를 촉진시키고 여패럴 기업의 번영을 불러일으켜, 파리의 지도력이 다시 한번 불가결하다는 것을 재인식시켰다<sup>16)</sup>.

이렇게 해서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복장은 1960년 중반 경까지 파리 Haute-couture의 우위 속에서 현대복장이 적응적 상승을 하면서 발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파리패션의 동향이 세계 패션의 견인차 역할을 할 즈음, 세계 각지에서는 젊은이들이 패션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져 가고 있었다.

1960년대에는 사회변화에 의해 대중소비사회가 도래했고, 영화, 음악, 매스미디어가

16) 南博, 「파리모드의 2000년 II」, 文化出版局 (1990), p.16.

젊은 세대에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그러한 가운데,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개성의 표현을 복장을 통해서 표출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보인 당시의 의생활 환경이라는 것은 전쟁의 영향으로 baby boom 세대가 태어났고, 젊은이들의 패션은 어패럴 기업에 있어서 중요한 존재였다. 그 예로써, 1940년대 후반에서 1950년대에 걸쳐서 대두한 영국의 Teddy boy 스타일의 유행이다.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발달해 온 기성복 산업이 대중소비 사회를 맞이해 세계 각국에서 이러한 새로운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의복의 필요성이 증가했다. 이렇게 해서 기성복 산업은 급격히 발달하고, 이것과 보조를 맞춰 화학섬유가 개발되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영향으로 이 시기는 복장의 다양화 현상이 나타났다.

### 3) 1964년-1974년

이 시기의 복장은 모드의 혁명, 젊은이들의 폭발, 모드의 위기 등으로 말하여 지고 있다. 이것은 복장사의 대변혁기를 의미하고 있지만, 그것은 사회 환경의 변화와 상관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 시기는 1968년 프랑스의 5월 혁명을 시작으로 해서 정점으로 달한 젊은이들의 폭발, 경제성장, 과학기술의 발달, 중간계층의 증가, 계급차이의 희박화, 남녀평등의 관념의 강조 등에 의해, 복장에 대한 가치관이 변하고, 복장을 통해서 자기실현을 하고자하는 의식이 강해져, 복장이 이 단계가 되면 더욱 새로운 혁신성과 개성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어, 복장의 기능이 개성화의 경향을 보였다.

당시는 젊은이들의 폭발이 정점에 달해서 그들에 의해 복장의 일대변혁이 일어난 시기이고, 이것을 유발시키는 세력은 제2차 세계대전 후의 baby boom 세대들이었다.

이 세대들은 기성사회 체제에 대한 반발감을 복장을 통해 표현하려고 했다. 그것은 대중의 복장으로부터 이탈을 도모했고, 그들 특유의 복장을 선호했다. 그 예로서, Mods, Rockers, Hippies 등의 스타일과 진, 미니스커트 등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반항적인 Subcultural Style은 이전 1940년대 후반부터 1950년대의 영국의 Teddy boy 스타일과 1950년대 말부터 1960년 초의 미국의 Beatniks<sup>17)</sup>에 의해 나타났다. 그들은 일반적인 것을 거부하고, Subcultural, 독창적이 스타일을 추구했다.

미국의 Beatniks의 운동이 대서양을 건너 유럽에 영향을 주었지만, Beatniks가 가지고 있었던 지성적, 평화주의의 이념은 없어지고, 그 반체제적 행동양식과 풍속적인 면만이 전해졌다. 이것은 프랑스에서는 hooligan, 영국에선 Rockers와 Mods, 미국의 Hippies, 일본에서는 태양족이라 불렸다.

이와 같이 국제화된 Beatniks는 그 후 Hippies족으로 바뀌었다. 국제적인 비트족의 출현에 있어 블루진, T-셔츠 등이 새로운 의상의 요소로써 전 세계에 보급되었고, 오늘날에는 성인 층에도 이 스타일이 보여 지고 있다. 이와 같이 반항의 상징이 된 진은 사회체제에 저항적인 젊은이들이 노동자와의 연대의 표시로써 선택했고, 1970

17) Beatniks-beat족의 젊은이들을 일컫음.

년대 초까지 지속된 베트남전쟁에 대한 반전운동, 프랑스의 5월 혁명, 미국의 여성운동 등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반항적인 상징으로써 착용되었다.

이것을 계기로 한 진은 1970년대에는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고, 어패럴 산업의 대성공을 가져왔고, 더불어 1980년대에는 전 세계인들의 일상복으로 정착되었다. 이와 같은 진의 의의는 성의 구별이 없는 의복의 근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 하나의 Subcultural Style의 등장은 미니스커트인데 이것은 새로운 시대의 표현을 예술과 풍속과의 결합을 시도한 것이고, 1965년 A. Courreges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 혁신적이고 개성적인 미니스커트는 새로운 기성복의 미학을 제시했고, 결과적으로 상류계급을 포함한 여성의 복장에 대한 감각과 젊은이들의 혁신적인 발상에 영향을 주어 변화를 추구해왔다. 이상과 같은 새로운 스타일의 출현으로 이 시기부터 어패럴 산업은 전 계층을 대상으로 발달해 왔다.

#### 4) 1975-1996년

이 시기는 에너지와 환경문제가 대두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에 의해 지구는 하나라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인류는 지구인이라는 의식이 싹트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세계는 경제적인 글로벌화를 시작으로 정치적 지구, 지구적 안정보장, 지구인이라는 의식 등 지구 전체에 글로벌화가 확대되었다.

또, 인터넷을 시작으로 통신, 커뮤니케이션의 확대, 국제인권 페미니즘과 소수민족 운동, 소비와 에콜로지의 시민운동 등도 글로벌한 시점에서 생각되었다. 국제정세가 글로벌화 됨에 따라 세계인들이 동일한 환경을 경험하고, 복장도 이러한 환경에 대응할 수 있게 매크로적인 시야에서 볼 수 있는 안목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렇게 해서 복장의 기능이 사회화라는 개념을 만들어 내게 되었다.

이 단계는 합리성을 추구해서 새로운 형태를 한 현대복장이 C. Dior의 New Look 과 기성복 산업의 발달에 의해 “적응적 상승”을 통해서 다양화되고, 젊은이의 폭발, 경제성장, 과학기술의 발달, 중간계층의 증가, 계급 차의 희박화, 남녀평등의 관념의 강화에 의해서 기존의 복장과는 다른 개성적인 복장이 나타났다. 이러한 기능을 포함해서 복장이 자기 존재의 어필을 충족시키기 위한 기능과 함께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자원문제, 소비자 지향, 에콜로지, 인간지향을 중시하는 사회화라는 복장의 기능이 현대인의 가치 속에서 점차 일반화 되어가고 있다.

다시 말해서, 현대 복장에 있어서 사회화라는 기능이 가치의 일반화가 되고 있다는 것은 원래 복장의 기능인 “유용성”외에도 분화에 의한 “합리성”, “다양화”, “개성화” 등도 현대복장의 기능에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현대사회의 복장의 기능이 다양화되고 있다는 것에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복장이 갖는 문화적인 요소인 물질적 산물, 사회적 산물, 정신적 산물<sup>18)</sup>로서의 역할을 한층 현저하게 하고, 복장을 통해서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활

18) M. J. H. Horn, L. M. Gruel, *The Second Skin* (3rd. ed.),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1981), p. 57.

용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종래의 경제우선의 사고로부터 인간, 문화를 중시하는 사회로의 변화이고, 물질적인 충족보다 정신적인 충족을 중심으로 물건의 선택기준을 자신의 취향으로 하는 고도 선택사회의 도래에 의한 가치관의 변화에 유래한 것이다.

여기서 복장의 기능이 다양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적인 예들을 살펴보면, 1970년-1990년대의 유행현상으로부터 생각해 볼 수 있다. 그것은 역사와 전통으로의 회귀인 레토르(retro) style이다. 레트로라는 것은 「지나간 과거를 다시 돌아보고, 회고하는 retrospective의 줄임말이다」<sup>19)</sup>.

19) 深井晃子, 「Fashion Keyword」, 文化出版局 (1993), p. 290.

이것은 단지 옛날을 그리워하고 돌아보는 것만이 아니라 과거의 양식을 표출하여 현재의 요소와 관련시켜 표현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1980년대 초는 르네상스, 바로크 시대의 스타일에 이미지를 응용한 복장이 등장했다. 그리고, 19세기, 20세기 초의 복장과 1920년, 1930년, 1950년대-1960년대에 유행한 복장이 차례로 나타났다.

그리고, 1995년은 Mods Style이 1996년은 Flapper Style이 나타나서,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서 Mods Style은 1960년대의 젊은이들이 자신의 개성을 표현한 복장이고, Flapper Style은 1920년대에 합리성을 추구한 개방적인 여성의 옷이었다.

그것은 역사와 전통을 다시 되새기어 현대에 알맞은 복장의 다양한 기능을 찾아내어 만든 것이고, 거기에는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현대인의 삶의 방식과 사고가 크게 반영되어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다.

## V. 결 론

이상과 같이 서술한 복장의 기능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수단적 개념을 넘어 우리들의 사회, 문화 속에서 의미수준에 걸친 조직화 및 체계화와 관련된다. 따라서, 복장은 어떤 사회의 구성원들의 사고방식, 행동의 총체로써 문화 속에 조직화되는 것에서부터 복장에 관한 규칙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어떤 것이 어떤 상황에 잘 어울리는 복장인가의 표현의 범위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것은 복장이 사회, 문화의 규범가치에 통제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 규범가치의 변화에 의해 복장이 또 다른 변화를 향하는 계기가 된다.

이것은 복장 그 자체가 인간의 의식과 가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동시에 복장이 사람들의 생활과 밀착해서, 그것을 반영하는 매체가 되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 현대사회의 복장이 더욱 더 많은 가능성의 추구를 허락하고, 자유로운 표현, 때로는 전혀 미묘한 미에의 창조력을 발로시켜주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복장의 변화는 합리적인 가치로부터 벗어나, 현대의 사회와 문화에 의한 인간의 사고방식의 변화가운데에서 더욱 자유로운 복장의 기능적인 면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복장은 개인의 신체에 둘러 감싼다는 의미에서는 개개인의 가치와 욕구 수준에 의한 개인적인 성향과 관계하는 것이지만, 이것과 동시에 사회현상, 즉 그 시대 상황에 맞는 감각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그것에 의해 우리는 복장이 갖는 상징성으로부터 시대와 사회에 있어서의 사회상황 또는 정서, 감각 등을 읽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어떤 사회에 있어서 정보가 없어도 그 시대의 복장을 보면 그 당시의 상황을 추측할 수 있다. 그것은 복장이 사회적 행위를 통해서 그 구성원들의 욕구성향, 연대감정을 상징하는 공통적인 가치를 형성해 주는 수단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인하여 복장은 개인적인 착장의 문제와 함께, 그 시대를 반영해 주는 것이라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의 흐름에 따라 복장의 기능도 변화해 가는 것이다.

따라서, 복장의 변화의 흐름은 단순히 디자인의 변화가 아니라 복장에 대한 가치 또는 사고방식, 즉, 전체 사회, 문화 속의 인간의 삶의 방식에 대한 자세의 변화이고, 삶의 방식의 변화를 축으로 해서, 디자인의 변화가 진행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복장의 변화요인 그 자체를 유행의 변화만으로 분석하기에는 미흡한 감이 있고 복장기능의 연구가 선행되어진 복장의 유행의 검토가 바람직하다는 연구 성과를 얻었다.

### 참고문헌

1. Buxbaum, Gerda, *Icons of Fashion : 20th Century*, Prestel Verlag Munich, London, 1999.
2. Davis, Kinsley, *Human Society*, Macmillan Co. New York, 1949.
3. Ewing, E., *History of 20th Century Fashion*, Barnes & Noble Book, Boston, 1974.
4. Kefgen, Mary, *Individuality in Clothing Selection and Personal*, Macmillan Co., New York, 1986.
5. Parsons, T., *Societies : Evolutionary and Comparative Perspectives*,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1966.
6. Phyllis G, Tortora, Kieth Eubank, *Survey of Historic Costume* (3rd ed.), Fairchild Publication a division of ABC Media Inc., New York, 1998.
7. Veblen, T., *The Theory of the Leisure Class*, Hodern Library, New York, 1931.
8. Horn, M.J.H., Gruel, L.M., *The Second Skin* (3rd ed.), Houghton, Mifflin Company Boston, 1981.
9. 이난희, 服裝의變化をもたらし要因に關する-考察, *Fashion Business 學會論文誌 Vol 2*, 1996, p.66.
10. 南 博, *파리모드의 200년 I, II*, 文化出版局, 1991, 1990.
11. 深井晃子, *Fashion Keyword*, 文化出版局, 1993.
12. 文化服裝學院, *Fashion Business*, 文化出版局, 1993.
13. 荻村昭典, *服裝學への道しるべ*, 文化出版局, 1991.
14. 大塚尙人, *近代 패션론*, 同文館, 1977.
15. 壽里 茂, *現代社會の構造*, 日本評論社, 1994.
16. 神山 進, *衣服と裝身の心理學*, 關西衣生活研究會, 1995.
17. 安藤喜久雄外 編, *現代社會の變動論*, 新評論社, 1984

## Abstract

# A Study on the Phenomenon of Diversification of Modern Clothing

• Lecturer of Kunkuk  
University

Nan-Hee, Rhee \*

The functions of the clothing have been changed rapidly in modern society. That means people want to show oneself strongly by the clothing. In other words, the social aspect of the clothing's function which is the expression of own's personality and satisfaction one's desire is emphasized.

This study is aimed at taking a look at the functions of modern clothing. The modern clothing has the various functions which are related to the changing of the social system.

The result of the study are as follows :

With the differentiation of society and institutionalization, the clothing is recognized as the medium which shows one's status and is restricted by people.

In modern society as mass society, the system of the social position collapsed. People has the inclination to express own's consciousness, personality and existence intensely. Also, the functions of clothing became diverse.

That means the clothing is influenced by the human's consciousness, a sense of values and became the medium which reflects the people's life.

This change of the costume means the clothing focus on the functional factor of the free-style clothing getting out of rational value.

Therefore, the change of clothing is not the change of the design but the change of value of the clothing, one's way of thinking about the clothing, the change of human life in whole society and the culture.

With the changing way of life, the change of the clothing has the system in which the design changes.

Therefore, I found that the we have to take a look not the change of the factors which influence the fashion but the functions of the clothing itself.

· **Key Words** : 현대복장(Modern Clothing), 복장의 기능(Function of Clothing), 사회화(socialization), 다양화(diversification), 개성화(individuation), 합리성(Rationality)